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화를 위한 기초 연구

성 미 애(방송대 부교수) · 진 미 정(서울대 부교수)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문 간 공통된 개념과 용어에 근거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마을에 대한 학문적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와 마을의 개념이 어떤 외연과 내포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사회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학 및 관련 학문분야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내리며, 어떤 요소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학, 사회복지학, 지역사회학 등에서 이루어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궁극적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마을을 개념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실증적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향후 지역사회와 마을의 가족친화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가족친화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란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공간성과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성요소로 함을 밝혀냈다. 즉 도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단위인 구나 동을 지역의 범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에는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인프라가 주로 이러한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생활과 돌봄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가족친화적인 지역의 구성요소라는 점은 알았지만, 이러한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거나 조작화하기에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열려있는 체계로(Chaskin, 1997), 닫혀있는 경계를 가진 체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유동적으로 형성된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가족생활과 돌봄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정도는 가족의 발달단계, 소득계층이나 교육수준, 거주기간이나 거주형태와 같은 주거생태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정책의 목표가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소속감, 유대, 사회자본, 사회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가족친화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열린 체계로서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학문분야의 논의는 다양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도시 거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환경인 지역사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가족의 삶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여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 제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